

■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 "5·18 행불자 보상비 지원"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980년 5·18 당시 행방불명자 등 60여 명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30억 원의 보상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5·18 행불자 등 60여 명의 보상비가 조만간 집행될 것"이라며 "5·18 30주년이 되는 올해 행불자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에는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으로 결정된 행방불명자와 부상자 등 60여 명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승용 "무상급식 못할 이유 없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4일 최근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헌법과 학교급식에 따라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라며 "법적 논리를 떠나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적 투자이며 복지"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이 63%로 무상급식을 전국 1위라는 사실에서 보듯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면서 "부자 감세로 깎아준 세금을 줄이고, 4대 강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충분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북과 비슷한 전남이 이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일 "전통문화 세계화 기반 마련"

이정일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광산에는 월봉서원 등 유적지와 '소리' 임방울, '시문학' 박용철 등 훌륭한 유산에, 호남 우도농악의 산실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면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다양한 유적지를 활용해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소리와 시문학 등 소프트웨어적 전통 문화를 접목한다면 손색 없는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문상필 민주당 시의원(북구 제3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기정·이용섭 국회의원을 비롯한 양형일, 전갑길, 정동채,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송광은 부구청장, 남평오·오형근·이형석 부구청장 예비후보 등 5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석했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섬기는 정치, 당당한 정치, 공부하는 정치, 비전을 만드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금남지하상가 영업손실 보상"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에 해당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발전을 위해 불련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문화전당 건립에 협조해온 금남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영산강 앞서 용봉천 살리자"

이형석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북구를 가로지르는 용봉천 일부 구간의 대강준 수치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높고, 토양의 오염도 기준치의 200배가 넘었다"면서 "4대 강 살리기 예산의 3분의 1만 '실개천 살리기'에 투자한다면 4대 강은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하천의 준설 작업만으로는 수질과 토양을 개선할 수 없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듯이 강 상류에 해당하는 실개천의 상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남 "우리밀 산업화에 앞장설 것"

이정남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임곡·평동 등 농촌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 특화작물인 '우리밀'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 확립과 우리밀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국 밀 생산량의 4분의 1을 점유할 정도로 주산지인 만큼 우리 밀의 적극적인 육성 및 식품산업으로의 산업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밀의 생산 확대를 위해 수매가격 보장과 건조보관시설 설비 등의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양근 "광양 도의원 출마" 선언

우양근 민주당 전남도당 전 공보국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정치와 전남도당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지역 발전에 보태고자 전남도의원 광양시 제3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광양산단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와 전남도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여수 엑스포타운 차질 우려"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4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엑스포타운 조성 사업이 현지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철거공사가 시작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여수시와 엑스포조직위, LH공사 등이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수엑스포 3개월 간의 행사를 성공시킨 뒤 박람회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애초 여수박람회 전시장 공간 배치와 건축이 기존 도시와 연계해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등 사후 활용요소를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김영집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남구의 보건복지분야 총사업체와 종사자의 수는 10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다"면서 "교육과 복지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는 남구의 취약한 경제 기반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사회복지, 영유아 보육, 노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호 "함평군수 경선 출마" 선언

안병호 전 함평축협장은 최근 "새로운 도전과 창조로 살기좋은 함평을 만들겠다"며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축협장은 엑스포 주제영산관에서 군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축제의 고장으로 명성은 높으나,실질적인 소득과 군민들의 생활수준은 뒷걸음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함평군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은 최근 단일 후보로 선정된 김성호 도의원과 안병호 전축협장과 양자대결로 압축된 상태다.

국민참여당 '시민 후보' 공모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광주지역 모든 선거단위와 모든 선거구에 시민 후보 공모를 실시한다.

1차 공모는 20일까지이며, 연대 논의의 진행 상황과 1차 공모 접수 상황을 고려해 2차 공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시민 후보 공모시점에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광주 시민이며, 다른 정당에 입당했지만, 당헌상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들도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는 시·도지사는 중앙당,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광주 시당에 하면 되며, 심사절차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준해서 진행된다. /최권일기자 cki@/서부취재본부= 황윤호 기자hwang@

17일부터 후보 자격심사

민주 전남도당 672명 대상

내달 1일부터 경선 돌입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에 나서는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672명의 후보가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기초단체장은 74명, 광역의원 156명, 기초의원 442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은 진도군수 선거에 김홍래 전 행정부 차관 등 7명의 후보가 접수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광양시장 선거에는 정현복 전 광양 부시장 등 6명의 후보가 접수해 그 뒤를 이었다. 장흥군과 영광군은 현 이명흠, 정기호 군수만이 접수를 했고, 장성군도 김양수 전 장성부군수만이 홀로 접수를 마쳤다. 다만, 중앙당에서 경선방법이 시 민공천배심원제도로 결정된 무안은 제외됐다. 무안군수 출마 예정인 민주당 후보들은 중앙당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남 광역의원은 무안 제1선거구에서 7명의 후보가 접수를 해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고, 화순 제1선거구와 강진 제1선거구,

장성 제1선거구 등 광역의원 3개 선거구는 각각 1명씩의 후보만이 접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뒤 각 선거구별 후보자를 압축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다음은 전남 기초단체장 접수 명단. ▲목포=정종득, 홍영기, 민영삼, 최기동, 박홍률 ▲여수=오현섭, 김강식, 배성기, 김재철, 조삼량 ▲순천=노관규, 구희승, 이은, 조보훈, 박광호 ▲광양=남기호, 정현복, 김재유, 김철현 ▲장흥=이명흠 ▲강진=국령애, 강진원 ▲영암=김일태, 김재원, 전동평, 김원배 ▲해남=김홍식, 김향욱, 박상일, 이석재, 이종효, 민인기 ▲안도=김종식, 김신, 박현호 ▲진도=박종석, 양인섭, 이동진, 김홍래, 강희원, 김병동, 김경부 ▲신안=강성종, 남상량, 박석배 ▲함평=안병호, 김성호 ▲영광=정기호 ▲장성=김양수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맙다! 봄비' 광주시 물걱정 끝

저수율 늘어 40억 절감 효과도

올해 잦은 봄비로 상수원의 저수율이 늘면서 광주시가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광주지역 강수량은 204.5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mm에 비해 54.5mm, 30년 평균 값 146.4mm보다는 58.1mm가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강수량이 늘면서 지난 13일 현재 광주시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수원지와 주암댐의 저수율은 각각 65%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 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동복수원지로 유입된 물량만 1천907만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

산할 경우 약 40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초 17년 만에 찾아 온 최악의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까지 논의되고, 이로 인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암댐 물을 1당 213원씩 구입해 시민들에게 공급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하루 평균 46만톤의 물을 생산하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9만톤은 동복댐 물을 이용하고, 나머지 17만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주암댐 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들 상수원의 저수율에 따라 수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저수율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일수는 동복수원지 219일, 주암댐 271일로, 봄비만으로 올 한 해 수돗물 걱정은 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태양광·풍력·지열 한자리에 17일 DJ센터 전시회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 미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SWEET 2010(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0)' 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3일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2개국 16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주최하며,

올해로 4회째다.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LS전선, SK임업, 한진산업 등 국내 대기업과 호주와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부스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을 시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WEET 2010' exhibition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holding a globe and text in Korean describing the event's focus on renewable energy and technology.